

# 농정 동향/주요 이슈

2021. 11. 10.(수)

## ■ ( 언론 동향 ) 2021.11.9. "아시아투데이" 보도

### ○ 농식품부도 요소 수급 상황 점검 나섰다..비료업계와 긴급 회의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박영범 차관이 더하우스 소호 오피스텔(구 잠사회관)에서 무기질 비료 원자재 수급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농식품부, 농촌진흥청, 농협경제지주, 비료협회 및 생산업체 7개사가 참석해 무기질비료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비료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업계에서는 남해화학, 조비, 팜한농, 풍농, 한국협화, 세기, KG케미칼이 참석했다.

박영범 차관은 "농업인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무기질비료 원자재 수급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해야 한다"면서 "향후 무기질비료 원자재 수급 상황뿐만 아니라 비료 수요·공급 상황 등을 지속해서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세종)>

## ■ ( 언론 동향 ) 2021.11.10. "농민신문" 보도

### ○ JA전농, 봄비료 단비 7개 품목 가격 인상

- 세계 곡물값 올라 수요 증가 해상운임 상승 등도 악영향

- 요소비료 추비 대비 18% ↑

일본농협이 봄비료(춘비) 가격을 전격 인상했다. JA전농은 1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공급하는 봄비료 가운데 단비(한가지 성분으로 제조된 비료) 7개 품목을 인상한다고 최근 밝혔다. JA전농이 계통공급하는 단비 8개 품목 가운데 석탄질소를 제외한 7개 품목의 가격을 일제히 상향 조정키로 한 것이다.

상승폭이 가장 큰 것은 수입 요소비료와 국산 요소비료다. 가을비료(추비)와 비교하면 각각 17.7%씩 올랐다. 수입 요소비료의 경우 이미 가을비료 입찰 때 가격이 24% 인상된 바 있어 이번 인상으로 1년 전보다 40% 이상 값이 오르게 됐다. JA는 계통공급 비료가격을 봄과 가을 1년에 두번 결정한다.

황산암모늄비료도 10.6%로 높은 인상률을 보였다. 인산질 비료 가운데 과인산석회 비료는 4.9%, 염화칼륨 비료는 17%, 규산칼륨 비료는 3.9% 각각 상승했다.

이처럼 대부분의 비료가격이 인상된 것은 세계적인 곡물가격 상승으로 비료 수요가 증가한 데다 원자재가격도 덩달아 올랐기 때문이라는 게 JA의 설명이다. JA전농에 따르면 요소와 인산암모늄은 세계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내수 위주 공급 정책, 염화칼륨은 세계 곡물가격 상승으로 인한 북남미의 비료 수요 증가가 영향을 미쳤다.

## 농정 동향/주요 이슈

2021. 11. 10.(수)

해상운임 상승과 환율시장 등도 원료 조달비용 증가에 영향을 끼친 요인으로 분석된다. 인산암모늄을 사용하는 복합비료 등도 가을비료값과 견줘 10% 가까이 인상된 것으로 알려졌다. 복합비료도 1년 전에 비해 20% 이상 값이 오른 셈이다. 요소나 암모니아를 사용하지 않는 석탄질소의 경우 가격 변동이 없었다.

JA전농 비료과는 “원유가격 급등에 따른 제조비 상승까지 겹쳐 제조사가 대폭 인상을 요구했지만, 쌀값 하락과 자재비 상승 등으로 농가 어려움이 큰 만큼 업체와의 교섭 끝에 상승폭을 최소화한 것”이라며 “원료 확보와 비료가격 절감 등 대책 마련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 김다정 기자 >